**<아내와 엄마의 역할도 사명입니다>**

분당 9지구 정든A마을 매듭목장 소속 이동희S

지난 4월 24일 <마더와이즈-지혜>를 수료하며 지난 8주를 돌아봅니다. 제 마음에 3가지 의미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1. 엄마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게 해준 ‘마더와이즈’

지난 1월, 계획 없이 생긴 아이 소식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더와이즈-지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고백은 확신이 되어 하나님께 아이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선하고 완벽한지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첫 날, 이애리 전도사님께서 ‘엄마라는 역할은 그냥 주어진게 아니라 사명임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것과 교재를 통해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 하는 어머님들이 날라(태명)를 위해 함께 중보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느끼고 누리는 8주를 보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역인지 매일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을 주시고 자부심을 갖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해준 ‘마더와이즈’

교재를 공부하며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이건 안다고 되는게 아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매순간 예습하며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좌절이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요. 부족한 내가 아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푯대를 세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한 8주였습니다.

1. 중보의 힘을 느끼게 해준 ‘마더와이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마무리 되는 마더와이즈. 그 덕분에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로가 되는지 느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조장님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자매님들과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매일 예습하고 묵상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기에 8주동안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이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그냥’ 일어난 일은 없기에 이번 한학기 마더와이즈 모든 자매님들과 매주 목요일 아침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알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이 끝난 이후에도 마더와이즈 함께 한 모든 어머니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이끄심 따라 가정과 서게 한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담대히 믿으며… 매일의 염려와 두려움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 될 수 있길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